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맑음

제목 : 즐겁지만 피곤한날

오늘은 일요일이다. 그래서 아침에 교회에
 갔다. 오늘은 교회에서 선유도 공원에 가는 날이다.
 그래서 선유도 공원에서 있다가 집에 왔다.
 놀러 갈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할 일을 하고
 놀라고 해서 학교 숙제를 다하고 놀러
 갔다. 나는 강현이와 학인이랑 놀았다.
 놀고 있는데 영조에게 전화가 왔다.
 영조가 놀라고 하여서 레미안 4차
 416동 앞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재밌었더니
 승현이와 기운이도 같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정도를 했다. 처음에는 학인
 이와 승현이가 정찰을 했다. 그런데
 우리를 잡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 시작
 했던 곳으로 재밌었더니 학인 이와
 승현이가 숨어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
 었다. 그래서 정도는 그만하고 블랙홀을
 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영조만 잡았다. 그리고
 영조와 기운과 승현이가 가서 학이, 나, 강현은 테니스장
 가서 캐리볼을 하면서 놀다가 집에 왔다.
 재미있었다.